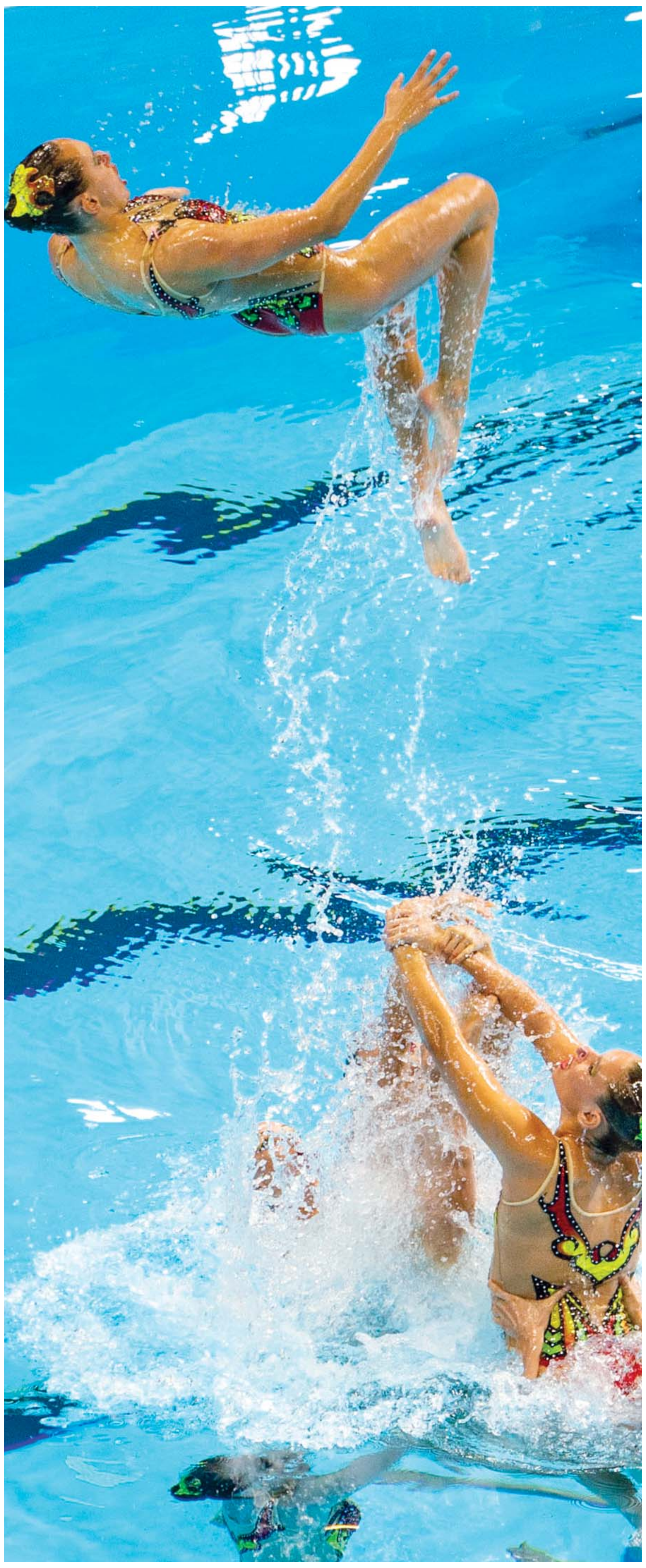
지구촌 가장 뜨거운 곳… 여기는 '광주'

"낚시 아니죠…음료 전달 맞습니다" 14일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 오픈워터 수영 경기장에서 열린 오픈워터 수영 여자 10km 경기에서 코치진이 선수들에게 물과 음료수를 전달하고 있다. <수영 조직위 제공>

사진=특별취재반 최현배·김진수 기자



인어의 비상 14일 오전 광주 염주수영장에서 열린 아티스틱 스위밍 팀 테크니컬 부문에서 이탈리아팀이 화려한 연기를 펼치고 있다.

꿈을 향해 입수 14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남자 1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우하람이 다이빙하고 있다. 우하람은 이날 결승에서 총점 406.15점을 기록, 4위에 올랐다.

첫발 뗀 여자 수구 14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수구 여자부 조별리그 B조 1차전 한국과 헝가리의 경기. 한국의 송예서가 첫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직접보니 꿀잼이네" 14일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한국대 헝가리 여자수구경기에서 관람객들이 한국여자수구대표팀을 응원하고 있다.